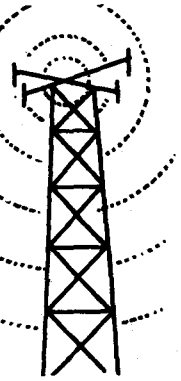


# 3월의 안테나



盧 永 翰

(대한양계협회편집국장)

## 양계산업의 위험 분산할 때

언젠가는 오리라고 예견하던 불황이 년 초부터 드디어 오고 말았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는 격언대로 오랜 호황후의 불황이라 그 심각함도 예년에 비할바가 아니다.

불황이 올때마다 업계 지도자들이 불황의 타개와 예방에 대한 장단기 대책이 논의 되다가 다시 경기가 좋아지면 깨끗이 잊어 버리고 다시 불황이 오면 협의하기를 수없이 되풀이 하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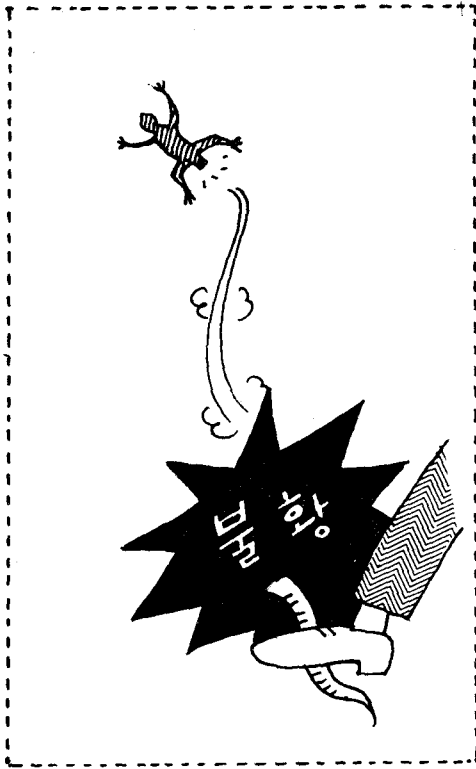
불황 극복의 대안으로는 언제든지 자의 이든 타의이든간에 생산조절과 소비확대 선전이 논의되고, 생산자 스스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많은 동업자가 쓰러진 시체위에 겨우 회복되는 것이 우리 업계의 현실이었다.

에너지 파동도 양계업자가 당해야만 하였으며 76년의 도계유통때도 모든 피해를 브로일러 업자 스스로 감당 하였다.

사료파동도 양계업자가 위험부담을 전담 하였다. 소비가 조금만 위축되어도 생산이 약간만 많아져도 양계업자는 불안하며, 모든 질병으로 부터 노출되어 있어 그 모든 위험을 양계업자 혼자 전담하고 있다.

양계업자는 이제 고달프고 짐이 너무 무거운 것을 알면서도 불나비가 불을 찾아 모여들듯이 일시적인 호황과 요행만을 꿈꾸며 그 수는 많아지고 있고 그리해서 파동은 크고 심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작년에 업계중진으로 (학계 연구계)부화 사료위생 동물약품 언론 기계



기구등 각분야 선진 미국의 양계산업을 연구하고 왔으며, 특히 양계산업의 위험 분산을 위한 계열화 생산에 대하여는 본지 1월과 2월호에 자세히 게재까지 하였다. 이제 불황은 양계업자만의 불황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부화업자 사료업자 동물약품 등 모든 분야에 까지 크게 파급되고 있다.

지금 양계업자가 당하고 있는 불황은 양계업자만의 불황이 아니며 관련 모든 업계도 강건너 불로 보지 말고 그 불이 옮겨 붙기 전에 힘을 합하여 불황 타개에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정부에서도 금년사업 계획에 있는 닭고기 및 계란의 비축을 더 늦기 전에 신속하게 결정하여 집행하여줄것으로 믿으며, 이번 불황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맞는 계열

생산을 개발 연구하여 양계산업의 위험을 분산하여 육류 부족시대의 사명을 양계산업이 담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

## 79년도 축산진흥 사업계획 발표

농수산부는 지난 2월 2일 금년도 축산진흥계획및 그실시 요령을 발표 하였다.

새로 이희일 장관의 취임함에 따라 금년도 축산정책이 어떻게 될것인가에 대해 그간 업계의 관심이 컸기에 양계에 관한 부분만 발췌 소개 한다. 대통령 각하의 년두 순시에서 이희일 장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년도 농정 목표는

1. 식량및 원예작물증산
2. 유통 혁신

3. 소득증대에 두고 이에따라 금년도 축산진흥 시책 목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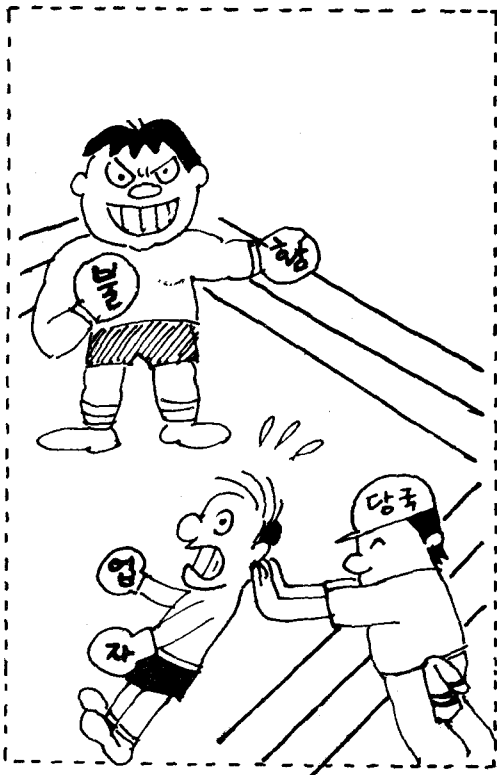
생산 : 가축의 대대적 증식기반 구축

수급 : 상시 적정량 비축으로 수급안정

축산 시책방향을

1. 초식가축의 자급기반이 확립될 때까지 급격히 늘어나는 우육소비를 조절하고 돈·계육을 주축으로 한 육류수급
2. 낙농진흥을 적극추진하여 乳·肉 증산과 농가소득 증대
3. 가축개량사업의 강력한 추진으로 단위생산 능력의 증대

4. 축산단지확대와 주력축산전업농가육성으로 계획생산유도
5. 초지와 담리작재배의 확대로 사육기반 강화
6. 배합사료의 원활한 공급과 품질향상을 위한 사료공장 규모확대와 검사기능 강화
7. 축산물수급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한 가격안정대의 계속적 발전과 항시 비축제도의 확립
8. 양축규모 확대에 대처한 위생 및 방역대책 강화.
9. 축산진흥기금의 확대조성으로 축산기반조성에 과감한 지원으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급증하는 축산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초지조성과 한우 비육사업등 가축증식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전근대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축산물 종합직매장을 설치하고 계란의 경우 양계협동조합을 육성하여 계란의 직접 가정배달을 적극 권장할 예정으로 되어있다.

특히 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상시 적정량을 비축하며 금년에는 닭고기 500 M/T 및 계란 15백만개를 비축하는 계획도 있다.

자원난 시대를 대비하여 사료원료 및 축산물의 해외 개발 수입의 가능성도 조사한다.

양계 사업은 수요에 충분한 양계산물을 생산하여 완전 국내 자급을 이루며 안정적 발전을 위한 생산조절을 본격화 한다. 부화장 종계장의 육성을 위하여 10개의 부화장 및 종계장에 장기저리(12.5% 3년거치 2년 상환)의 축산 진흥기금을 융자하여 계사 부화기 자동급이기 종계 기자재 구입등 시설근대화에 사용케 하였다.

특히 금년에 S P F종란 생산을 위하여 2억원을 지원 키로 한것등은 양계업계의 숙원이 이루어 지는 해라고 보겠다

양계분야의 생산기반을 위한 사업지원은 전체 지원비의 0.38%에 해당되는 3억원에 불과하다.

양계인의 염원인 수급조절을 위한 비축자금은 닭고기 500 M/T에 4억5천만원 계란 15백만개에 5억2천5백 만원은 요즈음과 같이 불황에 허덕이는 양계업계에는 복음이 아닐수 없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도 최근 비육사업이나 낙농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것은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수지맞지 않는

축산물 수요측정

구분단위	'77	'78	'79	'80	'81	'86	'91
인구천명	36,436	37,019	37,605	38,197	38,807	42,088	42,251
1인당GNP \$	864	999	1,147	1,317	1,512	-	-
육류합계천 M/T	295.9	377.7	440.4	492.7	557.4	809.5	1,089.3
1인당 kg	8.1	10.2	11.7	12.9	14.4	19.2	24.1
우유수요천 M/T	81.6	101.0	118.0	131.9	143.4	198.4	247.3
1인당 kg	2.2	2.7	3.1	3.5	3.7	4.7	5.5
돈수요천 M/T	141.3	187.9	217.1	242.4	278.2	383.9	529.3
1인당 kg	3.9	5.1	5.8	6.3	7.2	9.1	11.7
계수요천 M/T	73.0	88.8	105.3	118.4	135.8	227.2	312.2
1인당 kg	2.0	2.4	2.8	3.1	3.5	5.4	6.9
우유수요천 M/T	254.2	336.1	436.9	568.0	738.4	1,428	2,300.6
1인당 kg	7.0	9.1	11.6	14.9	19.0	33.9	50.8
계수요백만개	3,552	4,220	4,851	5,577	6,403	9,722	13,349
1인당 개	97	114	129	146	165	231	295

가축 증식계획

	'77	'78	'79	'80	'81	'86	'91	'91/'77 %
한우	1,492	1,551 (1,621)	1,613	1,677	1,744	2,070	2,396	161.
육우	16	34 (27)	47	71	104	364	726	4,538
유우	110	152 (135)	194	243	296	543	858	780
닭	1,618	1,727 (1,783)	1,854	1,991	2,144	2,977	3,980	246
돼지	1,482	2,083 (1,714)	2,257	2,396	2,482	3,211	4,484	303
계	30,225	34,160 (40,500)	36,935	41,880	44,115	64,061	74,167	245

( )내는 '78 실적임.

축산은 증산이 안되며 이번 농수산부가 발표한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주축으로 한 육류수급 시책이 강력히 추진되어 닭고기 소비 증가율 18.5%와 제란 15.5%를 훨씬 초과 하기를 바란다.

## 불황이 장기화 되는 양계업계

년초 부터 시작된 양계업계의 불황이 장기화 될 기미를 보이자 뜻있는 업계의 종견간부들이 이를 조기에 타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 양계협회 회의실에는 P.L 농장, GPS농장, 대규모 P.S 농장의 실무 최고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재 양계업계의 불황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격의없는 의견 교환을 하고 몇가지 의견에 합의하고 실천에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이날의 회의분위기는 전례없이 진지한 것으로 그 분위기를 소개하면

첫째 양계업계의 미래상에 관하여 선진 외국과 같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는점, 우리양계산업이 10년전에 비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물량의 변화뿐이며 생산성 유통 소비 구조등 10년 전과 대동소이하며 오히려 어떤면에서 혼돈속에 정체하여 있는 양계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고



상부상조의 길로!

함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자기회사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해 왔으나 앞으로는 양계업계를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남을 위하는 길이 곧 자기를 위하는 길임을 늦은감은 있으나 이날 모임에서 재확인 된것은 뜻 깊은 일이라 하겠다.

우리가 흔히 공사장에서 보는 포크레인 운 불란서의 무명의 어느 사람이 고안 하였다고 한다. 삽으로 땅을 파는 노동자의 힘을 덜어주기 위하여 고안되었으나 이 사람은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이제 부화업자는 부화업자의 이익보다는 브로일러 입자와 채란업자를 위하여 일하게 될때, 부화장의 발전은 저절로 잘 될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셋째 이날의 모임이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이날 결정된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기로 결의하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런 모임을 갖기로 하므로써 이날의 모임이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날 모임에서는 현재의 불황의 원인이 초생추의 과잉 생산과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79년 4월까지 계속 많은 초생추를 생산할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 더욱 불황이 장기화 될 전망이며, 78년 사료 생산실적에서 보는바와 같이 12월에 육계사료가 크게 증가하였고 금년 1월과 2월에도 사료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초

생추 운반 상자 생산량이 금년에 들어와 육용 초생추 월별 생산 잠재력표와 같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불황의 심각함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특히 최근 일부 육계 종계 업자는 종계 부족시기에 충분히 값고 닭은 환우기술로 육용종계 환우를 실시하므로써 불황을 장기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긴축 정책과 인플레이 물가 고의 불안 요인은 양계산물의 수요를 크게 감퇴시키고 있고, 저렴한 수입쇠고기는 닭고기의 큰 위협이 되고있어 닭고기 제란의 소비 증가를 크게 기대하기 힘들

육용 초생추 월별 생산잠재력

(단위 : 만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78년	555	559	618	660	676	652	596	552	591	713	898	1,080
79년	1,198	1,229	1,205	1,114	973	840	668	540	471			

월간양계 78.12

78(1-12) 배합사료 생산실적(전국)

단위 : M/T

월별	종별	육추	산란	육계	소계	양돈	낙농	비육	기타	합계	%
78년 1월		20,619	64,305	26,600	109,525	32,419	24,286	16,024	219	182,473	100
2월		20,095	59,927	29,663	109,685	27,561	22,911	16,371	333	176,861	96.9
2월		24,105	72,402	42,115	138,622	29,649	25,819	19,663	383	214,136	117
4월		25,728	72,628	43,042	141,398	30,384	25,546	17,786	206	215,322	118
5월		30,387	76,696	43,914	150,997	30,831	25,070	19,485	209	226,592	124
6월		30,402	74,193	44,316	148,911	35,210	25,655	17,387	220	227,383	125
7월		26,314	68,128	40,904	135,346	36,900	24,571	18,033	232	215,082	118
8월		25,342	71,381	32,276	133,999	45,161	25,877	20,408	177	225,622	124
9월		24,256	76,639	35,966	136,161	50,173	27,911	21,879	145	236,269	130
10월		23,301	78,579	31,193	133,073	54,783	29,756	21,497	107	239,216	131
11월		25,171	81,005	34,175	140,351	59,335	30,210	21,816	149	251,861	138
12월		29,033	86,192	45,261	160,486	65,704	33,116	23,739	245	282,292	155
79년 1월		-	-	-	165,721	70,908	34,249	22,360	517	293,785	
계		304,753	882,076	451,725	1,638,554	498,110	320,728	233,088	2,625	2,693,105	

다는데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러한 소비 감퇴와 생산 증가로 가격은 폭락하고 있는데 최근 사료사정의 악화로 일반양축가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며 거의 생산의욕을 잃어가고 있다는데도 의견이 일치 하였다.

이러한 현재의 어두운 양계업계에 젊은 층의 양계인들이 빛이 되고 소금의 될것을 결의한 이날 모임은 우선 적은일 부터 손쉬운일 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하면 된다는 굳은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불황이 짧은 기간에 회복되지 않을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있는 양계업계에 기적을 이루기로 결의 하였다.

이날 구체적 방안으로 결의된 신문에 소비확대를 위한 광고나, 농수산부, 축산진흥회와 협의하여 체화된 물량을 비축하는것 등등이 실사 이루어 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날 모였던 2. 17 정신은 분명히 우리 업계에 새로운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어 줄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농수산부 불황 타개를 위해 용단

2 월20일 농수산부는 대한양계협회장 축산 진흥회 관계관 업계 대표등 관련 업계대표자 회의에서 현재 양계업계가 당하고 있는 불황의 심각함을 실감하고 다음과 같은 전격적인 긴급조치를 취하였다.

① 축산진흥회로 하여금 부로일리는 체중이 무거운것 부터 생채 1 kg 당 (도계장

계근) 450₩에 산란노계는 1 kg 당 400 원에 무제한 수매 비축한다.

② 물량의 앞선 도계의 우선 순위는 대한 양계 협회에서 정한다.

③ 시행시기는 화급히 시행하며 한병에도 제품은 비축한다.

이번 2. 20 조치는 우리 업계에 일찌기 없던 획기적인 사건으로 지금까지 최고기와 돼지고기에 가격 안정대가 있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선 닭고기에 하한선이 450원(노계 400원)이 결정되므로써 양계사에 새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양계업자도 축산 진흥기금의 혜택을 보게 되었다.

우리는 이번 정부의 조치를 크게 환영하면서 다음 몇가지에 특히 유의하여 주기를 바란다.

1. 현재 80~90일씩 사육되는 부로이러가 많아서 사료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되므로 우선 체중이 무거운것 부터 수매하는 원칙이 절대 바뀌지 말아야 하며
  2. 수매 물량을 정하지 말고 불황타개의 조짐이 보일때 까지 계속하고 대금지불, 수매방법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사업에서 종종보는 병폐를 없애므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고
  3.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도 병행 하므로써 현재 크게 부족한 최고기를 대체하는 계기고 만들고
  4. 이번 비축사업의 경험으로 농협 또는 축산진흥회가 양계산업의 계열화 생산 주체가 되어 안정된 양계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줄것을 바란다.
- 좋은 뜻으로 시작된사업이니전체 양계인의 협조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